

금호타이어, 풋옵션 리스크 제거

쿠파타이어, 투자기업 비컨에게 지분 전량 매각 ... 풋백옵션은 없어

금호타이어는 자사 지분 10.71%(750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쿠파타이어(Cooper Tire)가 케이먼군도의 해외투자 전문기업 비컨(Beacon)에 보유지분 전량을 8월5일 매각함에 따라 시장에서 제기됐던 풋옵션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비컨은 쿠파타이어 보유지분을 풋 행사 가격인 주당 14.26달러에 모두 사들였으며 금호타이어의 중국 시장 점유율 및 향후 중장기적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장기적 전략투자를 한 것으로, 풋백옵션(매도 선택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2005년 쿠파타이어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면서 IPO(기업공개) 가격인 주당 14.26달러에 매입할 풋옵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주가가 18.2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국제경제 및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가 IPO가격 이하로 내려가자 쿠파타이어의 풋옵션 행사가 예견돼 왔다.

금호타이어는 “쿠파타이어의 풋옵션 행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3월 쿠파타이어가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를 물색해 계약을 성사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5>